

119팀, 전남수해지구찾아 구호품전달

태풍 메기 쫓아 전남 강진, 장흥수해지역에 가다



지난 8월 15일 영아부 성경학교의 물놀이 모습

119사역팀은 8월 23일과 24일 태풍 메기로 가옥과 도로, 농지가 침수되어 참담해 하는 형제자매들을 방문하고 긴급 비상비치품을 전달하고, 복구하느라고 장비와 병력이 투입되어 굶은 비지땀을 흘리는 국군장병들을 위문하고 음료수와 위로금을 전달했다.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으나 올림픽보도에 가려 우리의 관심이 소원해진 사이 남부지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울부짖을 겨를도 없이, 외로움으로 가득찬 모습으로 복구에 너나 없이 동참하였다.

우리교회는 22일 비상회의를 갖고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긴급 비상대비 비치품셋트를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아침 윤덕영목사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재해를 입고 가슴아파하는 남부지역 우리형제들을 위로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출발기도로 시작하여 성백설 김성배 장로는 화물차동차를 빌고 교회승합차로 생활필수품을 가득싣고 단숨에 천리길을 달려가 강진군 재해대책본부를 방문 위로하고, 4개면(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움천면) 15개 마을에 비상비치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수재민들은 허망한 마음으로 신경이 곤두서있어 예민한 상황이었으며 그 중에도 복구에 여념이 없었다. 23일 밤에 두 장로들은 회의를 갖고 계획에는 없었으나 인근 지역 피해가 많은 장흥군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장흥군 유치면 반월2지구와 대리 수덕마을을 방문 50여명의 전경대원과 450여명(성전50, 연동250, 대리수덕150)의 국군장병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현장에서 뜨거운 땀방울 흘리는 곳을 방문하여 음료수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수재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에 전념하는 모든 손길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케 하여주시길 간구 하였다.

태풍과도 싸운 청년부 농촌봉사활동

청년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로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을 다녀왔다. 청년과 교역자를 포함한 40여명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2면에서 계속)

10일, 구역모임개강

2학기 구역모임이 9월 10일 개강되며 8일 수요구역장 성경공부가 시작된다. 이날 구역교제와 메뉴얼(책)이 배부될 예정이다.

젊은 어머니 학교

지난 1학기 양육과정 과목중 젊은 어머니학교가 있었다.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여 3시까지 이어졌다.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인 문희곤 목사와 김혜경 사모가 함께 강의하며 이 시간을 진행했다. 이 시간을 통해 23명의 참여한 어머니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남편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훨씬 더 깊이 사랑한다." 이 과목을 통해 무너져가는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한다.

교사 위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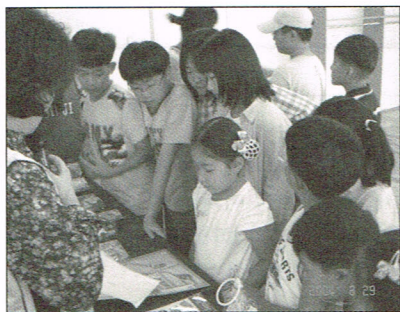
교육위원회는 7-8월 각급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마치고 난 교사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오늘(5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안뜰에서 "교사 Partnership Training"을 개최한다. 1부 저녁 식사 순서와 2부 각급 부서 소개 및 장기자랑, 간증과 교회학교 부서별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진과 영상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대상의 나이는 다르지만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교사로 같은 길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예정이다.

정신학원축제 '예랑제'

정신학교는 개교 117주년을 맞아 예랑제(예수 사랑 축제의 줄임말)를 지난 토요일(4일)에 가졌다. 정신학교 안에 있는 관현악반과 밴드반, 방송반과 연극반 모의법정반과 선교반, 무용반, 댄스반 등이 오랫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 외에 사진반, 걸스카웃반, 만화창작반, 물리반, 천문학반, 코스프레반, 화학반, 다도반, 금연홍보반, 신문반, 생물반, 컴퓨터반, YMCA반 등이 교정 곳곳에서 전시 및 체험학습 현장을 열었다.

달란트 가치 알기

통합아동부 달란트 시상식



8월 29일 주일, 통합아동부에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달란트 시상식이 열렸다. 예배시작하기 십분 전에 온 친구, 찬양을 열심히 한 친구, 그리고 게임에서 승리한 팀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를 하나씩 모아 그 성적대로 일등부터 차

레차레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골라 가졌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순수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달란트 시상식이 아이들에게 물건을 탐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 걸어가다가 보면 분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 곳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고 참 믿음을 갖자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와나클럽 10월중 오픈예정

유영안전도사, 어와나미국연수 다녀와

통합아동부(레인보우)와 AWANA (어린이, 청소년 선교 훈련 프로그램)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안 전도사가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미국 AWANA 연수를 다녀왔다. AWANA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크리스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속화와 상업주의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에 소중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유영안 전도사는 이번 미국 AWANA 연수를 통해 두 가지를 당부했다.

(2면에서 계속)

청년,올여름 해외 및 농촌에서 활발한 선교활동 펼쳐

청년부는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캄보디아와 중국으로, 농촌 봉사 활동은 충주시 영죽리로 떠났다. 이번 청년부 활동을 통해 청년부 담당 교역자 윤은성 목사는 느낀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청년들 안에 있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 회복되었다는 점이고, 둘째, 세계를 향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된 점이다. 내년 여름에는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청년들과 중국 땅의 조선족 청년들과 미주지역의 교포 청년들과 조국의 청년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민족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한국이나 중국에서 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셋째,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과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고 구체화 되었다는 점이다. 하반기부터는 청년 리더십 학교를 통해 영성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단기 선교 훈련,

리더십 훈련 등의 양육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면에 이어서)

태풍과도 싸운 청년부 농촌봉사활동



이곳은 올해 새롭게 정한 지역인데 마을 인구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고령화 지역이다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그래서 예년과는 달리 그곳 어른들께 실질적인 도

움이 되도록 모둠을 '밥 짓기', '봉사활동 하기' 두 가지로 단순하게 쪼갰다. 또한 출발 전에 교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외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했고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표시하셨던 '미용봉사활동'을 준비했다. 마을 곳곳에서 고추 따기, 브로콜리 심기, 버섯 배지에 종균 뿌리기, 그리고 힘들기로 이름난 논과 콩밭매기 등 일손을 요청하신 분들이 짓고 계신 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청년에게 농사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들어오는 저녁이면 다들 땀에 절었고, 파스 붙이기, 약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고 마을 어른들께서 소박한 웃음을 지어주실 때, 고마움을 표현해 주실 때는 주님께서 농활을 허락하신 참뜻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농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태풍 '메기'의 북상 소식이었다. 짧은 시간밖에 도움을 드리

지 못하는 처지에 비는 큰 악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배웠던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 흐린 날씨에 일에서 투른 우리에게 '무더위'라는 또 하나의 힘든 걸림돌을 치워 주셨다. 비가 오더라도 일하는 시간에는 그쳐서 주어진 일을 끝내도록 해주셨다. 참여했던 청년들의 마음에는 말씀과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일만 한 것은 아니다. 휴식 시간 때는 영화를 보거나 장기를 두었다.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피로를 풀었다. 매일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찬양 집회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 안에서 잘 몰랐던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청년부 안에 조금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회도 가졌다. 나가서 몸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혔으니 배도 많이 고팠다. 그래서 많이 먹기도 했다. 유상렬 전

도사님께서 챙겨주신 밥이 없었다면 이번 농활이 그렇게 즐겁지 만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을잔치 때 이곳까지 찾아와서 어른들께 대접할 음식 만들기를 도와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했다. 4박 5일, 주님께서 주신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하면서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할 뜻 깊은 경험을 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는 비교할 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생각하며 고마워하는 시간도 되었다. 이제 청년들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데 한 발짝 더 힘찬 걸음을 내딛을 것을 다짐한다.



청년 여름 중국비전트립

중국에서 만난 탈북 동포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도착 후 이튿날부터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역자분들의 사역, 기도 제목들을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는 식의 연속적인 시간을 보냈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계속 그분들의 말씀을 1-2시간정도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아 그분들의 그런 간증들이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았다. 이런 강박한 내 마음이 너무 싫었고 깨지고 싶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생활은 어렵고 힘들었으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 삼자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열정과 사역자분들의 헌신들을 직접 들으면서도 이러한 놀랍고도 안타까운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껴야 하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와 닿지 않았고 조금은 허황되게 들리던 사역자분들의 말씀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생각과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분들의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열정과 헌신이 있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 팀은 'B'이라는 곳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15명 정도 북한에서 꽃제비를 했었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조금 경직되어 보였고, 나 역시 조금 긴장이 되었다. 한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10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였고 체구가 매우 작은 아이였다. 내 마음이 먼저 열리

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아이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아이의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었고, 말씀 읽는 것과 찬양 부르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으며 그림속에서도 아주 좋았다. 함께 기도했을 땐 자기는 소리 나서 기도하는 것을 잘 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었다. 함께 말씀도 찾아보고 찬양도 하고 제법 마음이 열렸는지 경직되었던 표정이 밝아지고 웃기도 했다. 시간이 다 되어 우리 팀의 아이들 모두가 모여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눈물이 흘렀고, 정말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더욱 감사했던 이유는 함께 기도했던 모든 팀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말 사랑을 품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번 중국비전트립은 나에게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그러나 잔잔하고 신실하게 나와 우리공동체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분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심어주셨다. 앞으로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한다. / 김혜주

한국에서 맛보지 못한 갈급함을 느껴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복 받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기도제목들을 얻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기도제목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

을 함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다녀온 이유를 알았다. 기도제목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또 한가지 책임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식어버린 내 믿음의 불꽃을 다시 불태우기 위

해서.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일방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오묘하고도 철저하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내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앞으로 이 비전트립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김원준

(1면에 이어서)

여와나클럽 10월중 오픈예정
유영안전도사, 여와나미국연수

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성경 말씀과 사랑으로 돌보기 원하는 AWANA 교사들이 많이 이 사역에 동참해 줄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교회에서 AWANA Club을 10월 첫 주에 오픈할 계획인데, 이 사역을 위해 많은 중보기도자가 세워져 헌신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월 첫 주에 우리교회에서 시

작되는 AWANA Club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의 큰 부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기대한다.



교회소식

1. 장년세례교육

장년세례교육이 9월 19일 ~ 10월 24일까지 추석주일을 뺀 5주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집회실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모든 교육을 참석하여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층 자원봉사데스크로 해주십시오. 상세한 안내는 정희성목사(010-9992-8252)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2. 구역장 성경공부

구역장 성경공부가 9월 8일(수) 오후 8시 30분 (수요 성경공부 후) 지하찬양연습실에서 개강합니다. 구역 모임은 9월 10일(금)부터 구역별로 시작합니다.

3. 교사 Partnership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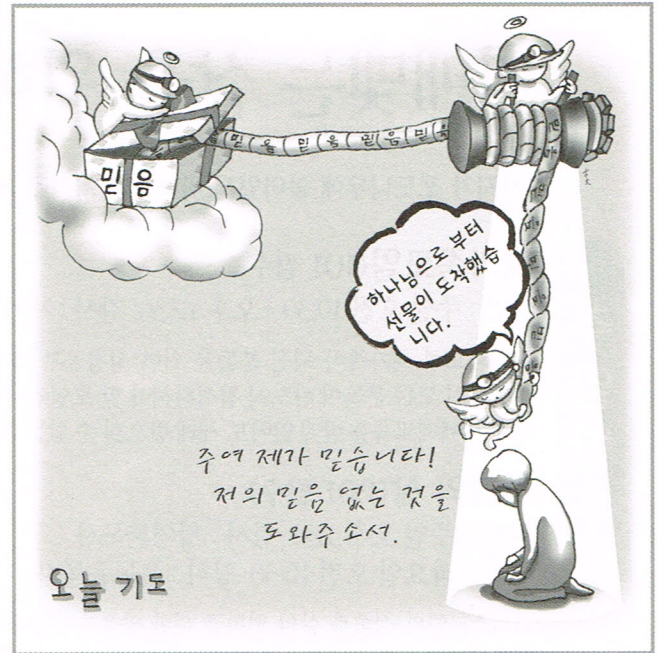
교사 Partnership Training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지하식당 옆 안뜰에서 있습니다.

4. 서점 봉사활동

주일날 8:30부터 오후3시까지 서점관리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하실 분은 1층로비의 자원봉사연결 데스크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만한 물가 오픈

설만한 물가가 4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지난 8월 23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실내에서만 있었던 화분의 나무들도 한여름의 쨍쨍한 햇살을 받아 한결 푸르러졌으며, 구석구석 깨끗하게 대청소도 하여 더욱 쾌적한 장소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그동안 외부에서 구입했던 다과종류를 이번 하반기부터는 우리 교회집사님 한분이 정성어린 손길로 직접 만든 여러가지 케익과 과자, 초콜렛등을 공급받기로하여 믿을수있는 풍성한 메뉴로 손님들을 맞을 수 있게되었고 다양하고 충실한 도서로 서점카페로도 이용가능하다.



북한선교의 절실함을 체험한 비전트립



이 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것은 우리 나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소망과 북한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까운 땅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독한 궁핍과 가난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북한의 이야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가

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무서운 나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한과 갈라져 고립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 받고 강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 땅에 소실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굶주림으로 그 땅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중국의 친척 방문 허가 제도가 생겨나고,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할 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이고, 강박한다한들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막을 순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임을 보았다. 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리라 마음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절실함은 그 땅을 나온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 졌다. 중국은 겉보기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외국인의 선교 활동 또한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며, 성경의 유포 또한 막고 있다. 모든 교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아 예수님이 아닌 정부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땅의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족 교회

들은 북한과 남한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자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상류층의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이단, 세상, 정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곳곳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하신 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다.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시하는 나라로 기억된 중국, 그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민족을 통해 확장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우리 민족과 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방문한 우리들을 도리어 섬기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친구 한명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이 되돌아 보게 되었다. / 박정애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 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교회소식

1. 장년세례교육

장년세례교육이 9월 19일 ~ 10월 24일까지 추석주일을 뺀 5주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집회실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모든 교육을 참석하여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층 자원봉사데스크로 해주십시오. 상세한 안내는 정희성목사(010-9992-8252)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2. 구역장 성경공부

구역장 성경공부가 9월 8일(수) 오후 8시 30분 (수요 성경공부 후) 지하찬양연습실에서 개강합니다. 구역 모임은 9월 10일(금)부터 구역별로 시작합니다.

3. 교사 Partnership Tr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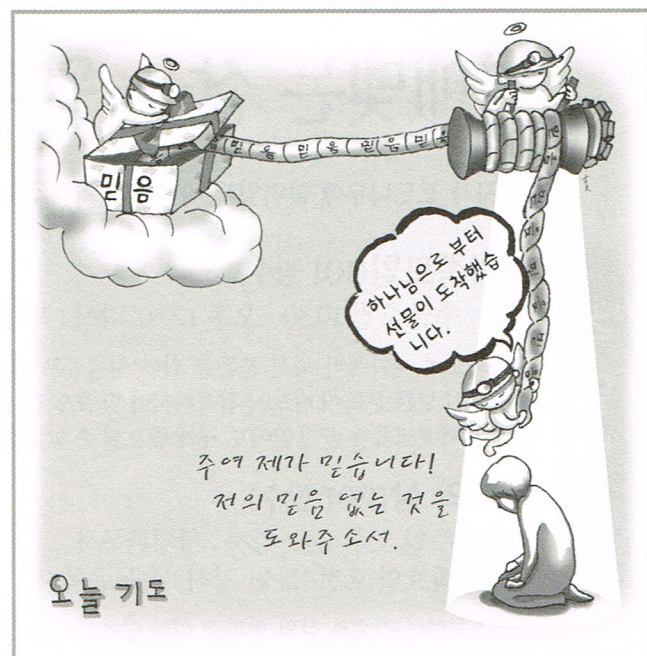
교사 Partnership Training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지하식당 옆 안뜰에서 있습니다.

4. 서점 봉사활동

주일날 8:30부터 오후3시까지 서점관리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하실 분은 1층로비의 자원봉사연결 데스크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만한 물가 오픈

설만한 물가가 4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지난 8월 23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실내에서만 있었던 화분의 나무들도 한여름의 쨍쨍한 햇살을 받아 한결 푸르러졌으며, 구석구석 깨끗하게 대청소도 하여 더욱 쾌적한 장소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그동안 외부에서 구입했던 다과종류를 이번 하반기부터는 우리 교회집사님 한분이 정성어린 손길로 직접 만든 여러가지 케익과 과자, 초콜렛등을 공급받기로하여 믿을수있는 풍성한 메뉴로 손님들을 맞을 수 있게되었고 다양하고 충실한 도서로 서점카페로도 이용가능하다.



북한선교의 절실함을 체험한 비전트립



이 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것은 우리 나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소망과 북한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까운 땅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독한 궁핍과 가난으로 인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북한의 이야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가

지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무서운 나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한과 갈라져 고립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렇게 꾀박 받고 강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 땅에 소실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굶주림으로 그 땅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 인해 중국의 친척 방문 허가 제도가 생겨나고,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할 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이고, 강박한다한들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막을 순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임을 보았다. 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리라 마음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절실함은 그 땅을 나온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 졌다. 중국은 겉보기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외국인의 선교 활동 또한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며, 성경의 유포 또한 막고 있다. 모든 교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아 예수님이 아닌 정부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 땅의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족 교회

들은 북한과 남한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자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상류층의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이단, 세상, 정부의 꾀박 가운데서도 곳곳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하신 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다.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시하는 나라로 기억된 중국, 그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민족을 통해 확장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우리 민족과 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방문한 우리들을 도리어 섬기어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친구 한명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이 되돌아 보게 되었다. / 박정애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노트,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